

소득 격차와 사회정책 과제



Income Inequality and Social Policy Issues

이현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소득분배와 소득빈곤은 악화된 바 있다. 시장소득 분배가 악화되면서 가처분소득 분배도 악화되었다. 다행스럽게도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불평등의 차이가 커지고 있어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이 확충됨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분배는 그 수준뿐 아니라 내용도 중요하다. 소득분배의 악화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노인의 빈곤율은 아직도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와 더불어 주목하여야 하는 점은 젊은 층의 가처분소득 빈곤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빈곤층 중 젊은 층의 구성비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빈곤율 차이를 기준으로 정부 개입의 연령별 영향을 미루어 보면, 노인의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빈곤율 차이가 가장 컸다. 노인 소득보장제도 강화와 더불어 근로 연령층에 대한 취업 지원과 생활 안정을 강화하는 정책 대응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소득 격차가 심화되는 것은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사회불안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 국제기구의 사회적 불안 (social unrest)에 대한 분석에서도 소득 격차를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소득 격차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소득 격차에 대응하는 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중에서도 소득 하위 계층의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회보장 제도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이 글에서는 최근

의 소득 격차 변화를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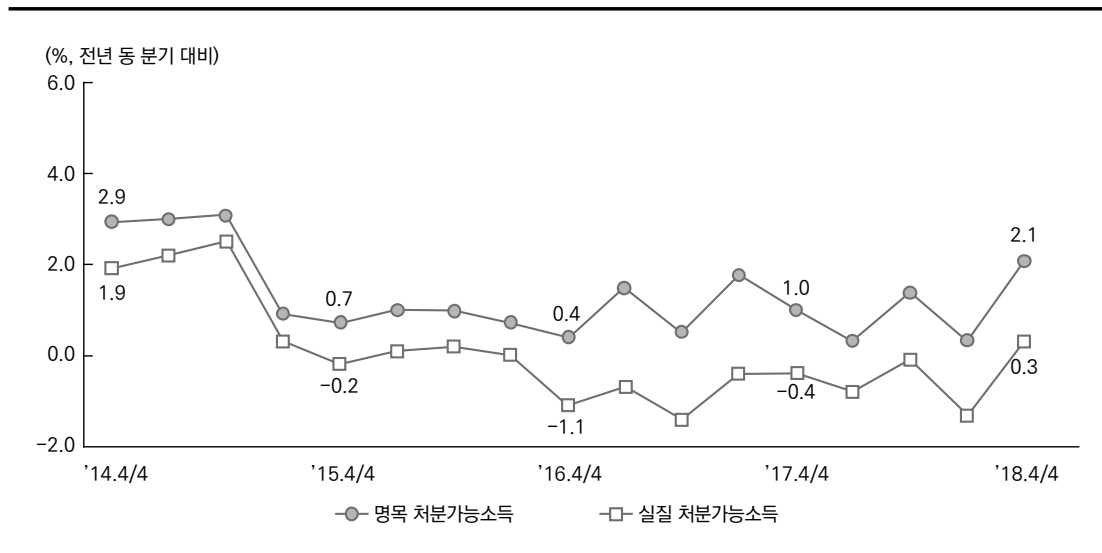
2. 소득 격차의 동향

지난 2월 통계청은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소득 부문 결과를 발표하였다.¹⁾ 2018년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60만 6천 원으로 전년 동 분기 대비 3.6% 증가(실질 기준 1.8%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기준으로 3만 1349달러에 이르렀다. 2001년 1만 1177.1달러와 비교하면 나름대

로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삶의 질은 다양한 차원의 생활 여건을 반영하여 변동할 것이다. 그중 하나의 차원을 구성하는 것이 소득일 것인데, 우리나라의 평균 가구소득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승하여 왔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국민총소득을 따라 높아지지는 않았다. 국민의 행복과 소득분배가 관련 있다는 연구가 적지 않다.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상황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그림 2]의 10개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가처분소득 빈곤율이 가장 높고, 가처분 소득 불평등도 미국과 영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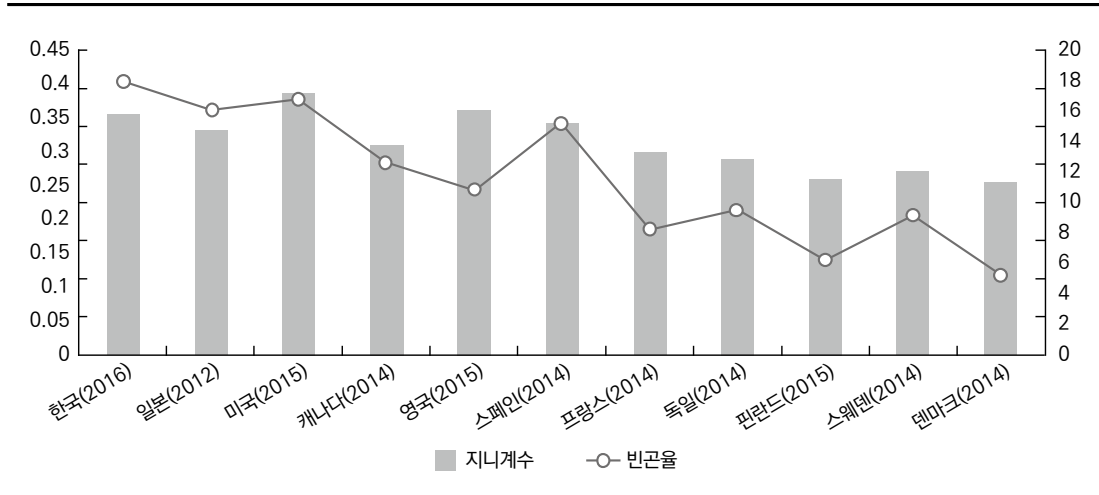
그림 1. 가처분소득 증감률 변화



자료: 통계청. (2019. 2. 21.). 2018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결과. p. 2.

1) 통계청의 소득 부문 발표에서 전국 기준은 도시 또는 비도시 지역의 가구원 2인 이상인 일반 가구이다. 1인 가구, 농어가는 제외된 상태의 통계임을 밝힌다.

그림 2.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와 상대빈곤율(중위 50% 기준) 비교



주: 가처분소득 기준. 괄호 안은 기준 연도.
 자료: 1)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8. pp. 186-197.
 2) 통계청. (2017. 12. 21.).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pp. 38-40.

최근에는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4분기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3만 8천 원으로 전년 동 분기 대비 17.7% 감소하였고, 소득 5분위는 932만 4천 원으로 10.4% 증가하였다. 최근까지도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 변화를 파악하는 데 가장 빈번하게 활용된 자료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다. 그러나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소득 자료는 2016년 이후 분기별 자료만 제공되어 연도별 비교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반면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로는 2017년까지의 연간 변화를 파악할 수 있어 <표

1>과 같이 두 자료를 활용하여 분배의 변화를 살펴보았다.²⁾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변화를 보면,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5분위배율은 2012년 잠시 감소되었다가 이후 다시 악화되는 경향을 유지하였고, 특히 2016년에 악화 정도가 더 심하였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17년까지 분석 시기를 확장하여 시장소득의 5분위배율 변화를 보아도 2013년 이후부터 2017년까지 계속 악화되었다. 시장소득과 달리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반영한 가처분소득 5분위배율의 변화를 가계동향조사 자료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보면, 시장소득과 달리 2011년 이후 완화되어 오다

2)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 자료 표본 중 1인 가구와 고령층 가구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여 소득분배 변화를 직접 비교, 해석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적시한 바 있다(통계청, 2019).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는 2011년 이전의 변화를 분석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므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함께 활용하여 소득불평등 변화를 이해해야 했다.

표 1. 소득분배의 변화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소득 5분위배율													
시장 소득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포함)	6.65	7.09	7.38	7.70	7.74	7.86	7.51	7.60	8.08	8.24	9.32	-
	가계금융·복지조사	-	-	-	-	-	11.21	10.65	10.29	10.32	10.41	10.88	11.27
가처분 소득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포함)	5.38	5.6	5.71	5.75	5.66	5.73	5.54	5.43	5.41	5.11	5.45	-
	가계금융·복지조사	-	-	-	-	-	8.32	8.10	7.68	7.37	6.91	6.98	7.00
지니계수													
시장 소득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포함)	0.330	0.340	0.344	0.345	0.341	0.342	0.338	0.336	0.341	0.341	0.353	-
	가계금융·복지조사	-	-	-	-	-	0.418	0.411	0.401	0.397	0.396	0.402	0.406
가처분 소득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포함)	0.306	0.312	0.314	0.314	0.310	0.311	0.307	0.302	0.302	0.295	0.304	-
	가계금융·복지조사	-	-	-	-	-	0.388	0.385	0.372	0.363	0.352	0.355	0.355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8. pp. 228-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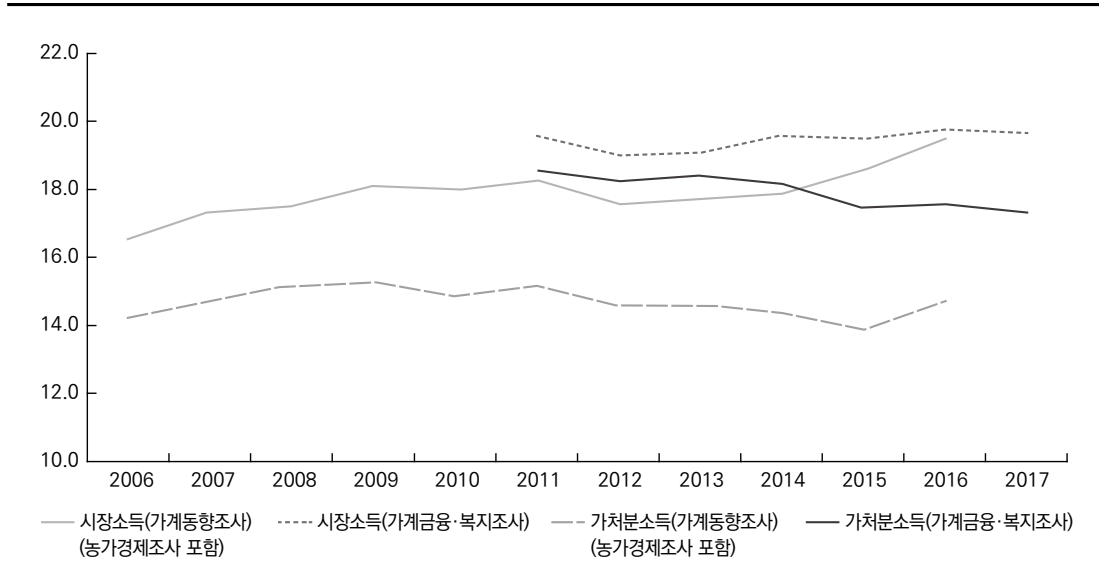
2016년에 악화되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의 분석 결과도 유사하지만 2016년 이후 악화되는 수준은 가계동향조사 자료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다.

지니계수의 변화를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시장소득 불평등은 2009년까지 악화되다가 2010년 이후 다소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14년 이후 다시 악화되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를 보면,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2015년까지 완화되다가 2016년 이후 악화되었다.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의 변화를 보면 2009년 이후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6년에 악화되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를 보면 2011년 이후 완화되다가 2016년에 다소 악화된 후 2017년까지 유지되고

있다. 자료마다 분석 결과가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경향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향을 정리하자면, 시장소득의 분배는 2010년대 초기 이후 악화되었다. 가처분소득의 분배는 시장소득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2011년 이후 완화되어 오다가 2016년 이후 악화되었다.

소득 격차를 이해하는 데는 빈곤율도 의미를 지닌다. 소득 격차는 상위 소득집단의 소득 상승과 하위 소득집단의 소득 하락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하위 소득집단의 소득 하락은 사회적으로 더 큰 부정적 영향을 준다. 빈곤율도 대체로 소득분배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지만 빈곤율과 소득분배의 변화가 항상 같은 것은 아니므로 빈곤율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빈곤율의 변화도 자료에 따라 조금 상이하였다.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장소득 빈곤율은 2012년

그림 3. 상대적 빈곤율 변화(중위소득 50%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8. p. 224.

이후 악화되었고 2015년과 2016년에 특히 더 가파르게 악화되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는 2013년 이후 시장소득 빈곤율이 다소 악화되었으나 2015년과 2017년에는 악화되지 않았다. 가처분소득 빈곤율의 변화도 유사한데, 다행스럽게도 시장소득 빈곤율과 가처분소득 빈곤율의 차이, 즉 정부 개입으로 인한 빈곤율의 완화 정도는 계속 커져 왔다. 가계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조사가 시작된 2011년 이후 완화되어 오다가 2016년에 악화되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조사가 시작된 2011년 이후 2013년과 2016년을 제외하고는 2017년까지 빈곤율이 완화되어 왔다. 빈곤율 변화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와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분석 결과가 상이하

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기초하면 2016년 가처분소득 빈곤율이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 정도가 매우 미미하였다. 자료마다 분석 결과가 다소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의 빈곤율은 전년과 비교하여 악화되었다.

3. 집단별 소득 격차의 변화

소득 격차와 빈곤율 악화는 그 자체로 사회적 인 문제라 할 수 있다. 소득분배와 빈곤율의 변화가 정책적으로 반영될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소득분배와 빈곤이 악화될 때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 중 하나는 그 원인이고, 이와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한 것은 소득이 악화된 집단, 빈곤층을 구성하

표 2. 소득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 분포 변화

5분위 중 분위		2017년					2018년				
		평균 연령	34세 이하	35~49세	50~64세	65세 이상	평균 연령	34세 이하	35~49세	50~64세	65세 이상
1분기	전체	53.7	8.4	36.2	29.1	26.3	54.7	8.1	32.6	32.2	27.2
	1분위	67.0	2.4	9.9	21.2	66.5	66.8	5.7	8.1	20.0	66.2
	5분위	49.3	7.5	44.8	40.1	7.6	49.3	7.0	43.0	44.5	5.5
2분기	전체	53.8	8.1	35.8	30.1	26.0	54.7	8.0	32.2	32.9	26.9
	1분위	66.2	3.5	12.5	19.1	64.9	66.3	6.6	9.2	18.9	65.2
	5분위	49.8	7.7	42.2	42.3	7.8	50.5	7.0	36.3	50.2	6.6
3분기	전체	54.0	8.1	35.2	30.0	26.6	54.8	8.1	31.8	33.1	27.0
	1분위	66.9	3.3	11.0	19.4	66.2	66.9	5.5	8.2	20.6	65.8
	5분위	49.5	8.0	42.6	42.0	7.5	50.1	7.0	39.3	47.0	6.8
4분기	전체	54.1	8.1	35.3	29.7	26.9	54.8	7.8	31.9	33.5	26.8
	1분위	66.6	3.8	12.0	19.2	65.0	66.4	5.5	9.1	21.3	64.1
	5분위	50.1	7.7	40.5	42.9	9.0	50.5	7.1	37.5	48.4	7.0

주: 농어가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김태완, 이주미, 최준영. (2019). 가계동향조사 분기소득 분석. p. 13.

는 집단의 변화이다.

앞서 소득 격차의 변화를 보면 대체로 2015년에 비해 2016년에 크게 악화되었다. 통계청의 발표에 근거하여 연령집단별 2015년 대비 2016년 소득분배의 변화를 보면, 근로 연령층(18~65세)의 소득분배가 은퇴 연령층(66세 이상)보다 더 크게 악화되었다(통계청, 2017, pp. 38-39). 근로 연령층의 2016년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40으로 2015년 대비 0.002 증가한 반면 은퇴 연령층의 2016년 지니계수는 0.424로 2015년 대비 0.002 감소하였다. 소득 5분위배율의 집단별 변화도 유사하여 근로 연령층의 2016년 가처분소득 5분위배율은 6.19배로 2015년 대비 0.02배 포인트 증가하였으나 은퇴 연령층의 2016년 가처분소득 5분위배율은 8.93배로 2015년

대비 0.23배 포인트 감소하였다. 은퇴 연령층의 소득 격차가 더 심한 것은 여전하지만 그 격차가 완화되고 있는 반면, 근로 연령층의 소득 격차는 상대적으로 더 심화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에도 이러한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2017년, 2018년 분기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참조하였다. 가계동향조사 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1분위 가구 구성에서 2018년 34세 이하 가구주 가구의 비율이 2017년 동분기 대비 적지 않은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34세 이하 가구주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다소 줄었으나 1분위 중 34세 이하 가구주 가구의 비율은 증가한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 가구주 가구는 그 절대적 비율은 높지

표 3. 연령별 상대적 빈곤율 변화(중위소득 50% 기준)

(단위: %)

	18세 미만		18~25세		26~40세		41~50세		51~65세		66~75세		76세 이상		전체	
	시장	가처분	시장	가처분	시장	가처분	시장	가처분	시장	가처분	시장	가처분	시장	가처분	시장	가처분
2006년	12.1	10.1	9.7	8.5	9.5	8.6	10.3	8.6	21.9	17.4	54.6	43.1	58.6	49.1	16.1	13.4
2007년	12.3	10.7	9.9	9.3	9.2	8.0	10.7	9.8	21.8	17.1	55.0	43.8	60.0	49.7	16.7	14.1
2008년	11.6	9.9	12.8	11.0	8.4	7.3	10.5	9.9	22.4	17.8	55.0	44.9	57.7	49.4	16.7	14.2
2009년	11.7	8.9	13.4	12.5	9.2	7.7	10.3	9.3	22.4	17.5	57.9	45.9	61.2	51.1	17.3	14.1
2010년	10.8	8.5	10.7	9.5	9.2	7.7	9.8	8.7	23.1	18.3	59.3	46.9	61.1	52.6	17.0	13.8
2011년	10.6	8.9	11.5	9.8	8.2	6.6	9.2	8.3	22.1	16.7	60.3	47.1	64.9	55.4	17.0	13.8
2012년	9.5	8.6	10.0	9.5	7.5	6.7	8.0	7.5	20.2	15.4	60.6	47.4	62.7	53.9	16.3	13.7
2013년	8.4	7.5	10.9	8.7	7.3	6.3	7.7	7.0	20.7	14.8	60.5	45.9	65.7	55.5	16.7	13.4
2014년	7.7	7.0	10.4	8.2	7.3	6.4	6.9	6.6	19.1	13.7	59.7	42.8	70.9	60.2	16.7	13.3
2015년	8.1	6.9	10.4	7.7	6.9	5.8	7.5	6.1	18.7	12.9	60.1	40.0	71.9	55.9	17.3	12.8
2016년	7.6	6.7	12.1	10.2	6.7	5.6	8.0	6.7	19.2	13.7	62.8	41.7	73.3	58.1	18.3	13.8
2017년 1/4	9.1	9.0	11.1	8.8	7.3	6.9	7.7	7.6	21.6	15.5	64.2	45.1	74.8	58.3	19.9	15.7
2017년 2/4	9.1	8.7	13.7	11.7	6.8	5.7	9.0	9.1	19.0	13.0	61.3	41.9	74.2	55.3	19.3	14.9
2017년 3/4	8.8	8.2	12.9	9.4	6.9	6.5	8.3	7.6	19.8	15.0	63.8	45.1	75.7	58.5	19.7	15.5
2017년 4/4	8.7	8.1	11.8	10.2	7.0	5.8	7.2	7.3	19.6	12.5	61.9	38.8	73.0	53.8	19.1	14.0
2018년 1/4	9.2	8.6	12.1	12.0	8.1	7.8	8.6	8.0	19.9	14.9	62.9	44.7	77.2	61.1	20.9	16.8
2018년 2/4	8.6	8.2	13.2	13.1	8.2	7.4	7.7	7.3	18.5	13.1	60.9	40.5	75.5	57.1	20.3	15.7

주: 농어가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정책연구실, (2018). 2018 빈곤통계연보 재구성.

만 1분위 중 노인 가구주 가구의 비율은 미세하게 감소하였다.

가계동향조사 자료 분석 결과로 연령별 상대적 빈곤율을 비교해 봐도 이러한 변화는 유사하다. 각 집단의 표본 규모가 크지 않아서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하지만 빈곤율의 절대적 수준은 76세 이상이 가장 높다. 빈곤율의 변화를 중심으로 보자면 18~25세의 빈곤율 변화가 상대적으로 커서 2016년 시장소득은 전년 대비 빈곤율이 16% 증가하였고 가처분소득은 전년 대비 빈곤율이 32%나 악화되었다.

2017년 이후 소득 분기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빈곤율이 악화되었다. 그러나 연령별로는 빈곤율 변화가 다소 상이하다. 51~75세의 2018년 빈곤율은 전년 동 분기 대비 감소하였는데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모두 완화되었다. 반면 18~40세의 빈곤율은 2분기 시장소득 외에 모두 동 분기 대비 2018년에 악화되었다. 그리고 76세 이상의 2018년 빈곤율도 전년 동 분기와 비교하여 악화되었다. 자료의 한계로 소득분배와 빈곤의 변화를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전반적

표 4. 분위별 가구주의 주된 경제활동별 분포(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 포함)

(단위: %)

구분	2017년 1분기								2018년 1분기							
	상용	임시	일용	고용주	자영자	무급	기타	실업, 비경활	상용	임시	일용	고용주	자영자	무급	기타	실업, 비경활
전체 평균	38.8	12.1	4.8	3.3	13.7	-	1.5	25.8	38.7	9.7	4.3	4.6	12.7	0.1	1.3	28.7
1분위(~20%)	2.6	12.0	5.2	0.1	5.7	-	0.8	73.6	2.4	7.7	4.5	0.4	6.9	-	0.6	77.5
~10% 미만	1.2	10.1	2.8	-	2.6	-	0.5	82.8	0.9	5.3	3.2	0.2	4.6	-	0.3	85.6
10~20% 미만	4.1	13.9	7.6	0.2	8.7	-	1.2	64.3	3.9	10.1	5.9	0.7	9.2	-	0.8	69.4
2분위(~40%)	24.4	19.5	7.0	3.8	16.4	-	1.9	26.9	22.1	16.5	7.7	3.0	15.1	0.1	1.3	34.3
3분위(~60%)	41.9	14.9	7.7	2.5	17.3	-	2.1	13.6	42.2	12.1	5.7	5.9	15.7	0.2	1.4	16.9
4분위(~80%)	57.6	8.6	1.9	4.9	16.3	-	1.5	9.1	57.9	8.2	2.4	5.9	15.1	-	1.7	8.9
5분위(~100%)	67.4	5.2	2.3	5.2	13.0	-	1.0	5.9	69.0	3.9	1.3	7.8	10.7	-	1.4	5.9
구분	2017년 2분기								2018년 2분기							
	상용	임시	일용	고용주	자영자	무급	기타	실업, 비경활	상용	임시	일용	고용주	자영자	무급	기타	실업, 비경활
전체 평균	39.0	13.7	5.7	3.3	14.2	-	1.6	22.6	38.8	11.7	4.8	4.3	12.8	0.0	1.3	26.3
1분위(~20%)	3.8	17.6	6.3	0.9	6.3	-	1.0	64.2	2.1	14.0	4.6	0.3	4.9	-	1.1	73.1
~10% 미만	1.3	12.8	3.1	0.8	3.1	-	1.1	77.9	0.6	7.0	3.4	0.1	3.7	-	0.8	84.4
10~20% 미만	6.3	22.4	9.6	0.9	9.5	-	0.9	50.5	3.6	21.0	5.8	0.4	6.1	-	1.4	61.7
2분위(~40%)	27.3	20.1	7.4	3.4	17.8	-	1.5	22.6	25.6	17.9	7.9	2.9	15.9	0.1	0.6	29.3
3분위(~60%)	43.1	15.6	8.1	3.2	14.3	-	2.7	13.1	46.5	13.5	6.1	4.1	14.3	-	1.0	14.6
4분위(~80%)	56.7	10.2	4.1	2.3	17.0	-	1.9	7.8	55.0	9.6	3.7	5.6	16.1	-	1.6	8.5
5분위(~100%)	64.1	5.0	2.4	6.6	15.4	-	1.0	5.6	64.5	3.4	1.8	8.8	12.7	0.2	2.4	6.3
구분	2017년 3분기								2018년 3분기							
	상용	임시	일용	고용주	자영자	무급	기타	실업, 비경활	상용	임시	일용	고용주	자영자	무급	기타	실업, 비경활
전체 평균	40.4	13.4	4.2	5.0	12.6	0.0	1.4	23.1	39.0	11.8	4.7	4.3	12.7	0.0	1.3	26.3
1분위(~20%)	3.2	16.8	5.5	0.9	7.4	0.1	0.6	65.6	1.5	13.5	5.5	0.2	7.2	-	0.8	71.3
~10% 미만	1.1	13.4	2.7	1.4	3.7	0.3	0.2	77.2	0.8	5.9	4.7	0.3	5.0	-	0.4	82.8
10~20% 미만	5.4	20.1	8.2	0.3	11.0	-	0.9	54.1	2.3	21.1	6.2	0.1	9.3	-	1.2	59.8
2분위(~40%)	29.5	21.2	6.0	3.8	13.1	-	2.2	24.3	23.0	18.9	7.7	3.5	15.7	-	0.8	30.5
3분위(~60%)	45.0	13.7	4.5	5.9	15.7	-	1.6	13.6	44.3	13.8	5.9	4.2	15.2	-	0.9	15.7
4분위(~80%)	56.9	10.5	2.6	6.2	14.2	-	1.9	7.7	56.2	9.5	3.0	6.4	14.6	0.2	2.0	8.1
5분위(~100%)	67.5	4.6	2.2	8.1	12.5	-	0.9	4.3	69.6	3.2	1.4	7.0	11.0	-	2.1	5.8
구분	2017년 4분기								2018년 4분기							
	상용	임시	일용	고용주	자영자	무급	기타	실업, 비경활	상용	임시	일용	고용주	자영자	무급	기타	실업, 비경활
전체 평균	40.0	13.6	4.2	4.8	13.0	-	1.4	23.1	38.8	12.2	4.2	5.2	11.8	0.0	1.3	26.3
1분위(~20%)	4.3	16.3	4.6	1.3	7.4	-	0.8	65.3	1.7	12.6	5.3	0.9	7.3	-	0.4	71.9
~10% 미만	0.6	14.5	2.8	1.3	3.4	-	1.0	76.5	0.8	7.3	4.2	0.8	5.3	-	0.2	81.5
10~20% 미만	8.1	18.0	6.5	1.3	11.4	-	0.6	54.0	2.7	17.8	6.4	0.9	9.2	-	0.6	62.4
2분위(~40%)	28.7	19.8	7.0	3.4	16.2	-	1.5	23.5	24.8	19.8	7.3	3.9	14.0	-	0.6	29.6
3분위(~60%)	48.5	14.6	4.5	4.4	14.5	-	0.9	12.8	47.1	14.3	5.0	4.3	12.5	-	1.7	15.1
4분위(~80%)	53.5	11.3	2.9	6.6	14.4	-	2.9	8.4	55.0	10.1	2.4	8.7	13.9	0.2	1.4	8.4
5분위(~100%)	64.6	6.3	2.0	8.3	12.3	-	0.9	5.6	65.5	4.4	1.2	8.3	11.4	-	2.5	6.7

주: 농어가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분기 자료). 각 분기. 김태완, 이주미, 최준영. (2019). 가계동향조사 분기소득 분석. p. 15.

표 5. 분위별 가구주의 주된 경제활동별 분포(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 미포함)

(단위: %)

	상용	임시	일용	임금	고용주	자영자	비임금	무급, 기타	상용	임시	일용	임금	고용주	자영자	비임금	무급, 기타
	2017년								2018년							
	1분위(하위 20%)															
1분기	10.0	45.5	19.6	75.1	0.3	21.4	21.7	3.2	10.7	34.1	20.0	64.8	1.9	30.6	32.5	2.6
2분기	10.7	49.2	17.7	77.6	2.4	17.5	19.9	2.7	7.9	51.9	17.0	76.8	1.0	18.3	19.3	3.9
3분기	9.4	48.7	15.9	74.0	2.5	21.5	24.0	2.0	5.4	47.0	19.1	71.5	0.8	24.9	25.7	2.7
4분기	12.5	46.9	13.3	72.7	3.8	21.3	25.1	2.3	6.1	44.7	18.9	69.7	3.1	26.0	29.1	1.3
5분위(상위 20%)																
1분기	71.7	5.5	2.4	79.6	5.5	13.8	19.3	1.1	73.3	4.1	1.4	78.8	8.3	11.4	19.7	1.5
2분기	67.9	5.3	2.5	75.7	7.0	16.3	23.3	1.0	68.8	3.7	1.9	74.4	9.4	13.5	22.9	2.6
3분기	70.5	4.8	2.3	77.6	8.5	13	21.5	0.9	73.9	3.4	1.5	78.8	7.4	11.6	19.0	2.2
4분기	68.5	6.7	2.1	77.3	8.8	13	21.8	0.9	70.2	4.7	1.3	76.2	8.9	12.3	21.2	2.7

주: 농어가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분기 자료). 각 분기. 김태완, 이주미, 최준영. (2019). 가계동향조사 분기소득 분석. p. 14 재구성.

으로 젊은 근로 연령층의 빈곤이 심화되었고 76세 이상의 빈곤은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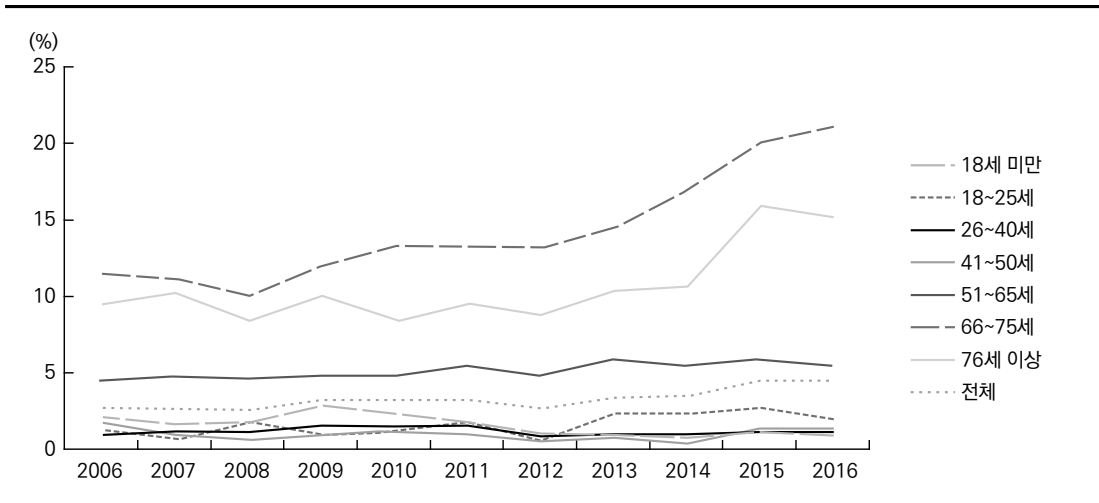
소득분배가 악화된 데는 시장소득의 분배 악화가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시장소득의 영향을 이해하기 위하여 가구주의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분위별 집단 구성을 살펴보았다. 실업·비경활을 포함하여 1분위의 가구주 경제활동 변화를 보면 전 소득분위에서 실업·비경활 가구주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소득 1분위는 가구주가 상용·임시·일용직, 고용주, 자영자인 비율이 모두 감소세인데, 5분위의 경우 그 감소 폭이 작고 상용직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실업과 비경활을 제외하고 가구주의 경제활동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분위에서는

2018년 임금근로자인 가구주의 비율이 전년 동분기와 비교하여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비임금근로자 가구주의 비율은 2018년 2분기를 제외하고는 약간 증가하였다. 반면 5분위는 임금근로자 가구주의 비율은 1분위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감소하고 있지만, 비임금근로자 가구주의 비율은 1분위와 달리 1분기를 제외하고는 감소하였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왔다. 소득보장제도의 발전도 예외는 아니다.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에 따라 정부의 개입 전 시장소득과 세금·공적이전 후 가처분소득의 빈곤율 차이는 계속 커졌다. 하지만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빈곤율의 차이는 연령별로 그 크기가 다르다. 즉 연령에 따라 정부 공적이전의 영향이

그림 4. 연령별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빈곤율의 차이



주: 농어가 제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정책연구실, (2018). 빈곤통계연보 재구성.

표 6. 소득별·자료원별 중위 50% 기준 노인(65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2006~2017년)

(단위: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시장 소득	가계동향조사	54.5	55.3	54.6	58.2	59.1	60.9	60.0	60.6	62.1	63.3	65.7	-
	가계금융·복지조사	-	-	-	-	-	56.9	55.4	55.7	55.9	56.6	57.5	56.6
가처분 소득	가계동향조사	43.8	44.6	44.8	46.4	47.1	48.8	48.2	47.5	47.2	44.7	46.7	-
	가계금융·복지조사	-	-	-	-	-	46.5	45.4	46.3	44.5	43.2	43.6	42.2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8, p. 226.

다르다. [그림 4]를 보면,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빈곤율의 차이는 66~75세에서 가장 컸고 다음으로 76세 이상, 51~65세에서 빈곤율 차이가 컸다. 반면 젊은 연령의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빈곤율 차이는 매우 작았다. 빈곤율이 높은 집단에서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빈곤율의 절대적 차이가 클 수 있다. 그러나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빈곤율 차이를 빈곤율 중 해당 차이로 계산하

여 그 차이의 상대적 규모를 비교하여도 대체로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빈곤율의 절대적 차이가 유사하였다. 젊은 근로 연령층은 대부분 노동시장에서의 소득으로 생활하게 되므로 공적이전의 영향이 작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의 소득 격차가 근로 연령층에서 커지고 있으며 빈곤층 중 젊은 연령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빈곤한 근로 연령층에 대한 소득보장제

도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매우 높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제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높다.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여도 노인빈곤율이 제일 높은 국가에 속한다. 다만 다행스런 계도 정부의 소득보장제도 강화와 더불어 빈곤층 중 노인의 비율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76세 이상 노인은 75세 이하 노인과 비교하여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빈곤율 차이가 작았다.

4. 나가며: 사회정책의 과제

문재인 정부는 소득보장정책을 큰 폭으로 강화하고 있다.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초연금 액을 상향 조정 중이며, 2018년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2019년에는 5세 이하 아동 전체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이와 더불어 청년구직촉진수당을 확대해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이현주, 김진, John Hudson, Stefan Kühner, 전지현, 2018, p. 138). 최근의 소득 격차 변화를 감안하면, 우선 76세 이상 고령자의 소득보장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 앞으로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을 상향 조정하면서 그 효과와 한계를 정교하게 분석,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소득분배와 빈곤의 변화 경향을 보면 정부의 소득보장제도가 향후 노인의 소득보장과 더불어 젊은 근로 연령층의 빈곤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젊은 연령

의 사회 구성원은 사회보장에서 제도적 배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사후적 공공부조가 아니라 취업 지원 등 사전적 대응으로 젊은 연령층에 대한 건강한 사회보장이 준비되어야 하고, 소득분배의 악화로 인한 젊은 층의 사회적 좌절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주거보장과 의료보장, 그리고 교육보장을 강화하여 젊은 층의 빈곤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적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이 삭감되었다. 근로 연령층은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의 경제·사회적 기틀이다. 따라서 근로 연령층의 소득 격차, 빈곤 심화에 대응하는 건강한 사회보장제도는 근로 연령층뿐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구성원의 안정적 삶을 위해서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 (2018). 2018 나라살림 예산개요.
 기획재정부. (2016). 2016~2020 국가재정운용 계획.
 고용노동부. (2018). 2018회계연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김태완, 이주미, 최준영. (2019). 가계동향조사 분기소득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발간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통계

- 로 보는 사회보장 20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정책연구실. (2018).
2018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현주, 김진, John Hudson, Stefan Kühner,
전지현. (2018). 현금지원과 현물지원 정책
의 구성과 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 (2019. 2. 21.). 2018년 4/4분기 가계동
향조사(소득부문)결과.
통계청. (2017. 12. 21.). 2017년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